

## 선사 시대의 전개와 국가의 성립

옛날에 환인의 아들 환웅이 하늘 아래에 뜻을 두고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  
환웅은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하였다.  
..... 환웅이 꿈이 변한 여인과 혼인하여 아들을 낳으니, 단군왕검이라 하였다. - 일연, “삼국유사” -

“삼국유사”에는 천신 사상을 내세운 환웅 부족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 연합하여 고조선을 건국하였다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실려 있다. 단군왕검의 고조선 건국은 이후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민족적 자긍심을 일깨워 주고 힘을 모을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Q1.**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다를까?

**Q2.** 청동기와 철기의 유입은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

### 만주와 한반도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다

한반도와 그 주변 지역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구석기 시대부터였다. 구석기인은 돌을 깨뜨려서 뿔석기를 만들었으며, 채집이나 사냥 등으로 식량을 구하였다. 그리고 식량을 구하기 위해 이동 생활을 하고, 동굴이나 바위 그늘, 막집에 거주하였다.

###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다

약 1 만 년 전, 빙하기가 끝나고 기온이 상승하면서 신석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신석기인은 돌을 갈아 만든 간석기와 흙을 빚어 구운 토기를 사용하였다. 신석기 시대에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지만, 초기에는 여전히 채집과 사냥, 물고기잡이가 식량을 구하는 중요한 방식이었다.

신석기인은 강가나 바닷가에 움집을 짓고, 부족을 중심으로 마을을 이루어 정착생활을 하였다. 부족은 연장자나 경험이 많은 사람이 이끌었다. 한편 이 시기에는 조개나 뽕, 벌 등으로 다양한 예술품을 만들었으며, 종교적 관념이 생겨 자연물이나 특정 동식물을 숭배하거나 무당과 주술을 믿기도 하였다.

❶ 주먹도끼 (경기 연천 출토)

❷ 솜베찌르개 (경기 광주 출토)

❸ 복원한 움집 (서울 강동)

❹ 빗살무늬 토기 (서울 강동 출토)

## ⑤ 덧무늬 토기 (부산 영도 출토)

###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고조선이 건국되다

기원전 20세기에서 15세기 무렵 만주 지역에서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경이 발달하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났고, 정복 전쟁도 활발해졌다. 이에 점차 빈부의 차이가 생기고 계급이 발생하면서 군장이 등장하였다. 군장은 스스로를 하늘의 자손이라 칭하고, 청동기를 사용하여 권위를 높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건국되었다.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수용하면서 중국의 연과 겨를 만큼 성장하였다. 이후 중국 진·한 교체기에 위만이 건너와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기원전 194). 고조선은 철기를 본격적으로 수용하여 주변 지역을 정복하고, 한과 한반도 남부의 진국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하며 성장하였다.

고조선이 성장하자 한 무제는 대군을 보내 고조선을 멸망시키고(기원전 108), 고조선 일부 지역에 군현을 설치하였다. 한편 고조선은 8조법을 만들어 사회 질서를 유지하였는데, 한 군현 설치 이후 법률이 60여 조로 늘어났다.

### 철기가 확산되고 여러 나라가 성장하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 철기 문화가 확산되면서 사회가 크게 변화하였다. 철제 농기구 사용으로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였고, 철제 무기 보급으로 정복 전쟁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를 바탕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는 여러 나라가 성장하였다.

송화강 유역에 자리 잡은 부여는 중국과 교류하며 발전하였고, 고구려는 졸본 지역에 자리 잡고 세력을 키워 나갔다. 옥저와 동예는 고구려의 간섭으로 정치적성장이 늦었다. 한편 한반도 남부에서는 마한, 변한, 진한의 삼한이 성장하였다.

### 8조법

- 사람을 죽이면 즉시 사형에 처한다.
- 남에게 상처를 입히면, 곡물로 배상한다.
-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데, 스스로 재물을 바치고 죄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50만을 내야 한다.

- 반고, “한서” -

### 부여

나라에는 군왕이 있다. .... 가족의 이름으로 관리의 이름을 정하여 마가, 우가, 저가, 구가, 대사, 대사자, 사자가 있다. .... 제가들은 사출도를 주관하는데, 큰 곳은 수천이며 작은 곳은 수백이다. - 진수, “삼국지” -

### 삼한

국읍에는 각기 한 사람을 세워 천신에 제사 지내는 것을 주관하게 하고 천군이라 한다. 또 여러 나라가 각기 별읍을 두고 소도라 한다. 큰 나무를 세워 방울과 북을 매달고 귀신을 섬겼다.

- 진수, “삼국지” -

## 02

###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의 발전

모든 대가도 스스로 사자·조의·선인을 두었는데, 그 명단은 모두 왕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대가의 사자·조의·선인은) .... 회합할 때의 좌석 차례에선 왕가의 사자·조의·선인과 같은 줄에는 앉지 못한다.

- 진수, “삼국지” -

고구려는 초기에는 왕권이 강하지 못하여 각 부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두고 부를 통치하였다. 이후 삼국은 관등제 정비,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등으로 점차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갖춘 고대 국가로 성장하였다.

Q1. 삼국은 어떻게 중앙 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였을까?

Q2. 삼국 간의 교류와 항쟁은 시기별로 어떻게 달라졌을까?

### 삼국과 가야가 건국되다

부여에서 내려온 주몽이 졸본 지역에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이후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긴 고구려는 5부 연맹을 토대로 성장하여, 태조왕 때에는 옥저를 복속하고 한 군현을 공격하여 왕권을 강화하였다. 고국천왕 대부터 5부를 방위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개편하여 행정적 성격을 강화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미천왕 때에는 낙랑을 공격하여 대동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고구려계 유이민인 온조는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백제를 세웠다. 마한의 여러 소국 중 하나였던 백제는 한강 유역을 발판으로 성장하였다.

경주 지역에서는 진한의 소국 중 하나였던 사로국이 신라로 발전하였다. 신라는 초기에는 박·석·김씨가 돌아가며 왕위에 올랐으나, 내물왕 때 김씨의 왕위 세습이 확립되었다.

한편 낙동강 하류의 변한 지역에서는 김해의 금관가야를 중심으로 여러 소국이 연맹을 이루어 발전하였다.

### 삼국 초기, 각 부가 모여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다

초기의 삼국은 여러 부가 모여 구성한 연맹체였다. 각 부의 지배자는 영역과 백성을 거느리고 자체적으로 관리를 임명하여 부를 통치하였다. 이 시기에는 가장 세력이 강한 부의 지배자가 왕이 되었으나, 왕의 권한은 각 부를 모두 아우를 만큼 크지 않았다. 전쟁이나 중대한 범죄자의 처벌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은 왕과 각 부의 지배자가 회의를 열어 결정하였다. 이에 삼국에서는 일찍부터 고구려의 제가 회의와 같은 제도가 발전하였다.

###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갖추다

삼국이 왕을 중심으로 한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를 갖춰 나가면서 각 부의 세력은 점차 약화되었다. 삼국은 자치적 성격의 부를 행정적 단위로 재편하였으며, 각 부의 지배자는 중앙 귀족으로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각 부에 속한 관리도 왕을 정점으로 하는 ●관등제에 편입되었다. 관등제는 신라의 골품제와 같은 신분제와 연계하여 운영되어 각 신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관등에 제한을 두었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가 갖춰지며 삼국 초기부터 실시되었던 회의 제도도 변화하였다. 왕이 귀족 회의를 주재하는 관리를 임명하였고,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왕에게 재가를 받게 하였다.

고구려는 대대로, 백제에서는 상좌평, 신라에서는 상대등이 중심이 되어 회의를 주재하였다.

삼국은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율령을 반포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통치 질서를 확립하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신라는 법흥왕 때 율령을 반포하였으며 백제 역시 율령을 반포하였다.

또한, 삼국의 왕실은 불교를 수용하여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골품제는 신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신분제로 왕족을 나누는 ‘골’과 귀족을 나누는 ‘품’으로 이루어졌다. 골품제는 골품에 따라 관등이나 관직 승진에 제한을 두었다. 능력이 뛰어나도 골품이 낮으면 승진에 한계가 있었으며, 가옥이나 수레, 의복 등 일상생활도 제약을 받았다. 이러한 골품제는 삼국의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 정비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고구려와 백제에도 비슷한 신분제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 제가 회의

(고구려에는) 감옥이 없다. 범죄자가 있으면 제가들이 모여 평의하여 사형에 처하고 처자는 몰수하여 노비로 삼는다.

- 범엽, “후한서” -

### 관등제

관리의 등급을 나눈 제도이다. 고구려는 대대로 이하 10여 관등, 백제는 좌평 이하 16관등, 신라는 이별찬 이하 17관등으로 정비되었다.

### 백제가 먼저 삼국 항쟁의 주도권을 잡다

백제는 3세기 중엽 고이왕 때 목지국을 병합하여 한강 유역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관등제를 정비하고 관리의 복색을 정하는 등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4세기 중엽에 근초고왕은 마한의 남은 세력을 정복하여 남해안까지 진출하였으며, 고구려를 공격하여 황해도 일대를 차지하였다. 또한, 중국의 동진, 왜와 교류하였다.

### 고구려가 동아시아 강국으로 우뚝 서다

고구려는 4세기 소수림왕의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5세기에 영토를 크게 넓혔다. 광개토대왕은 만주 지역 대부분을 차지하는 한편,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이북을 점령하였다. 또한, 군대를 보내 신라에 침입한 왜와 가야의 연합군을 격파하였다.

광개토대왕의 뒤를 이은 장수왕은 중국의 남북조와 교류하여 국제 관계를 안정시키는 한편,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적극적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백제의 수도인 한성을 함락하고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영토를 넓혔다. 이 시기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한 고구려는 천하의 중심임을 표방하였다.

고구려에 한성을 빼앗긴 백제는 웅진(공주)으로 수도를 옮겼다. 이후 백제는 점차 국력을 회복하여 6세기 성왕 때는 사비(부여)로 천도하고, 신라와 연합하여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강 하류 지역은 곧 신라에 빼앗겼고, 성왕도 관산성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 목지국

마한의 소국 중 하나로 삼한을 대표하던 나라이다.

### 한성백제박물관

한강 유역에서 백제가 어떻게 성장하였는지 관련된 유물을 찾아보자.

### 고구려의 천하관

하백의 손자이고 일월(日月)의 아들인 추모성왕께서는 원래 북부여에서 태어나셨다. 이 나라, 이 고을이 가장 성스러움을 천하 사방이 알지니 .....

- ‘모두루 묘지명’ -

### 웅진 시기의 백제

동성왕	신라와의 동맹 강화
무령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중국 남조와 교류</li><li>●22담로에 왕족 파견 ⇒ 지방 통제력 강화</li></ul>

### 신라가 한강 유역을 차지하다

6세기에 접어들어 신라는 빠르게 중앙 집권 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한편, 영토를 확장하였다. 6세기 초 지증왕은 나라 이름을 ‘신라’로 하고, ‘왕’ 칭호를 사용하였으며, 우산국을 정복하였다. 뒤를 이은 법흥왕은 율령을 반포하고, 불교를 공인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또한, 연호를 사용하고, 금관가야를 병합하였다.

6세기 중반 진흥왕은 화랑도를 국가적 조직으로 개편하였다. 그리고 백제와 연합하여 한강 상류 지역을 차지하고, 이후 백제가 차지한 한강 하류 지역도 손에 넣었다. 또한, 대가야를 정복하는 한편, 함경도 지역까지 진출하였다.

### 신라, 삼국을 통일하다

6세기 후반에 분열된 중국이 통일되면서 동아시아 정세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중국을 통일한 수·당은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 여러 차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

고구려가 당과 대립하는 사이 신라는 백제의 공격으로 어려움에 처했다. 신라는 고구려에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당과 나당 동맹을 맺었다. 나당 연합군은 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660), 권력 다툼으로 혼란한 틈을 타 고구려도 멸망시켰다(668).

당은 백제와 고구려의 옛 땅에 각각 웅진도독부와 안동도호부를 설치하고, 신라에는 계림도독부를 두어 한반도를 장악하려 하였다. 이에 신라는 매소성과 기벌포에서 당군을 물리치고 삼국을 통일하였다(676).

### 신라의 왕호 변천

사용 시기		호칭	의미
1대	박혁거세	거서간	군장, 족장
2대	남해	차차웅	제사장
3대	유리	이사금	연장자
17대	내물	마립간	대군장
22대	지증	왕	중국식 왕호

### 고구려와 수·당의 전쟁

고구려는 살수, 안시성 등지에서 수·당을 물리쳤다.

## 03

### 남북국의 성립과 발전

부여씨가 망하고 고씨가 망함에 이르러 김씨가 그 남쪽을 차지하고, 대씨가 그 북쪽을 차지하고 발해라 했으니, 이를 남북국이라 한다. 마땅히 남북국의 역사책이 있어야 했는데, 고려가 이를 편찬하지 않은 것은 잘못된 일이다. - 유득공, “발해고” -

유득공은 “발해고”에서 발해의 역사를 신라의 역사와 함께 남북국 시대로 서술할 것을 강조하였다.

남북국 시대에는 남쪽의 신라와 북쪽의 발해가 서로 경쟁하고 교류하며 발전하였다.

**Q1.** 신라는 통일 이후 넓어진 영토를 다스리기 위해 어떤 정책을 펼쳤을까?

**Q2.** 발해의 건국과 발전 과정은 어떠했을까?

## 통일 신라, 통치 체제와 군사 조직을 개편하다

태종 무열왕, 문무왕이 삼국 통일을 이끌며 신라의 왕권은 강화되었다. 문무왕의 뒤를 이은 신문왕은 김흠돌의 난을 진압하여 왕권을 견고히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통일 신라는 넓어진 영토와 늘어난 인구를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여러 제도를 정비하였다.

### 김흠돌의 난

신문왕의 장인이었던 김흠돌은 귀족들과 함께 반역을 모의하였다. 이에 신문왕은 김흠돌 등 반역을 모의한 세력을 숙청하였다.

중앙 행정 조직에서는 왕의 직속 기관인 집사부를 중심으로 정치를 운영하고 그 장관인 시중의 권한을 강화하였다. 이로써 귀족 합의 기구인 화백의 권한이 축소되었다. 또한, 사정부를 설치하여 관리를 감찰하였다.

지방은 9주 5소경 체제로 정비하였다. 전국을 9주로 나누고 그 밑에 군과 현을 두어 지방관을 파견하고, 외사정을 보내 지방관을 감찰하였다. 군현 아래의 촌은 토착 세력인 촌주가 다스리게 하였다. 또한,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 세력을 일정 기간 동안 수도에 올라와 있게 하는 상수리 제도를 시행하였다.

지방의 중심지에는 5소경을 설치하여 일부 중앙 귀족이나 고구려, 백제, 가야의 유민을 이주시켰다. 이를 통해 수도인 금성(경주)이 나라의 동남쪽에 치우친 약점을 보완하고, 지방 세력을 회유하고 통제하였다. 한편 5소경은 지방의 정치와 문화 중심지가 되었다.

군사 조직은 9서당과 10정을 중심으로 정비하였다. 중앙군인 9서당은 신라인뿐 아니라 옛 고구려·백제·말갈인까지 포함하여 민족 융합을 꾀하였다. 지방군인 10정은 각 주에 1정씩 배치하고, 국경 지역인 한주에는 2정을 배치하여 국방과 9주 5소경 지방 치안을 담당하게 하였다.

### 관료와 백성에게 토지를 나누어 주다

통일 이전 신라는 관직 복무의 대가로 녹읍을 지급하였다. 통일 이후 신문왕은 관료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으며, 이후 녹읍을 폐지하고 녹봉을 지급하여 귀족세력의 경제적 기반을 약화하려 하였다. 점차 토지제도가 정비되면서 성덕왕 때에는 백성에게 정전을 나누어 주었다.

토지 제도의 개편은 국가의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8세기 이후 귀족의 반발과 녹봉 지급에 따른 행정상의 번거로움 등으로 녹읍이 부활하였다.



녹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리에게 지급</li> <li>●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와 노동력 징발 권한 부여</li> </ul>
관료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일 신라 시대 관리에게 지급</li> <li>●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수조권)만을 부여</li> </ul>
정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백성에게 나누어 준 토지</li> <li>●원래 경작하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가 인정해 준 것 또는 주인이 없던 땅을 토지가 없는 농민에게 나누어 준 것으로 여겨짐.</li> </ul>

####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하여 세금을 거두다

통일 신라는 백성에게 조세, 공물, 역을 부과하였다. 호구와 재산을 기준으로 조세를 부과하였으며, 지역의 특산물을 공물로 거두었다. 16세에서 60세까지 남자에게는 군역 등 역을 부과하였다.

통일 신라는 농민을 철저하게 파악하고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신라 촌락 문서에는 인구, 논과 밭의 면적, 소와 말, 뽕나무와 잣나무, 가래나무의 수 등을 3년에 한 번씩 자세하게 조사하여 기록하였다.

#### 신라 촌락 문서

(사해점촌은) 둘레가 5,725보이다. 호수는 모두 11호이다. .... 이 중 3년 전부터 살아온 사람과 지난 3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을 합하면 145명이다. .... 말은 모두 25마리인데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 22마리이고 지난 3년 사이에 늘어난 말이 3마리다. 소는 모두 22마리인데, 예부터 있었던 것은 17마리이고, .... 논은 모두 102결이다. .... 밭은 모두 62결이다. .... 뽕나무는 모두 1,004그루인데 지난 3년 사이에 더 심은 것이 90그루이고, 이전부터 있던 것이 914그루이다. 잣나무는 모두 120그루이다. - ‘신라 촌락 문서’ -

#### 신라 촌락 문서(일본 나라)

신라 촌락 문서는 통일 신라의 서원경(충북 청주) 부근의 촌락을 비롯한 4개 촌락의 경제 상황을 조사한 문서로 일본 쇼소인에서 발견되었다. 이 문서의 내용에서 신라 정부가 촌락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생각 키우기

Q1. 통일 신라가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한 목적을 말해 보자.

Q2. 통일 신라가 자료와 같이 촌락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 통일 신라의 공문서 (복원)

신라에서 일본으로 수출된 그릇을 정리하던 중 발견된 문서이다. 앞면에는 지역에서 진상한 물건, 뒷면에는 녹봉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신라가 동요하다

8세기 후반에 이르러 신라의 왕권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해공왕이 피살된 뒤 중앙 진골 귀족 사이에서 왕위 쟁탈전이 일어나면서, 신라는 150여 년간 20명의 왕이 교체되는 혼란에 빠졌다. 지방에서도 김헌창 등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중앙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크게 약해졌다. 이 과정에서 농민은 중앙 정부와 지방 세력가에게 이중으로 수탈당했다. 이에 전국 각지에서 농민들이 봉기하여 신라 사회는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이를 틈타 신라 각지에서는 군사력을 모아 스스로를 성주, 장군이라고 칭하는 호족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중앙에서 밀려난 귀족, 촌주 혹은 지방에 주둔한 장군 등이 성장하여 이룬 세력이었다. 호족은 신라 사회에 불만을 품은 6두품 계열의 지식인, 선종 승려와 함께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다.

### 신라 말의 혼란

전쟁과 흉년의 두 재앙이 ..... 동쪽에 와서 나쁜 중에 더욱 나쁜지 않은 곳이 없다. 굶어 죽고 싸우다 죽은 시체가 들에 즐비하였다. - 최치원, ‘합천 해인사 묘길상탐지’ -

### 후삼국으로 분열되다

신라가 혼란한 틈을 타 견훤과 궁예가 지방에서 독자적 세력을 모아 나라를 세우면서 후삼국 시대가 열렸다.

견훤은 완산주(전주)에 도읍을 정하고 후백제를 세웠고(900), 궁예는 복원(원주) 지방의 도적 집단을 바탕으로 성장하여 송악(개성)에 도읍을 정하고 후고구려를 세웠다(901). 이후 궁예는 정치 조직과 관제를 정비하고, 나라 이름을 마진이라 하였다. 그리고 수도를 철원으로 옮기고,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으로 고쳤다.

### 견훤

신라 서남 해안을 지키는 군인 출신으로 세력을 키워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 궁예

신라 왕족 출신이란 이야기가 전한다. 북원 지역 양길 휘하에서 세력을 키워 후고구려를 세웠다.

## 사료로 보는 역사 신라 말의 혼란과 후삼국의 성립

혜공왕의 피살: (780년) 이찬 김지정이 난을 일으켜 무리를 모아 궁궐을 에워싸고 침범했다. 여름 4월에 상대등 김양상이 이찬 경신과 함께 군사를 일으켜 김지정 등을 죽였으나, 왕과 왕비는 반란군에게 살해되었다. - “삼국사기” -

김헌창의 난: (822년) 3월 웅천주 도독 헌창이 그의 아버지 주원이 왕이 되지 못한 것을 이유로 반란을 일으켜 나라 이름을 장안이라 하고..... 여러 군사가 성을 에워싸고 열흘 동안 공격하여 성이 장차 함락되려 하자 헌창은 화를 면할 수 없음을 알고 스스로 죽었다. - “삼국사기” -

원종과 애노의 난: 진성 여왕 3년(889) 나라 안의 여러 주·군에서 조세와 공물을 보내지 않아 나라의 창고가 텅 비고 썩썩이가 궁핍하게 되었으므로 왕이 사자를 보내어 독촉하였다. 이 때문에 곳곳에서 도적들이 벌떼처럼 일어났다. 이에 원종과 애노 등이 사벌주(상주)를 근거지로 반란을 일으켰다. - “삼국사기” -

신라는 8세기 혜공왕 피살 이후 김헌창의 난 등 지배층의 왕위 쟁탈전으로 혼란에 빠졌다. 이후 원종과 애노의 난을 시작으로 전국 각지에서 농민이 봉기하여 혼란이 가중되었고, 결국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세워지면서 후삼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 발해가 건국되고 해동성국으로 발전하다

고구려 멸망 이후 당은 고구려 유민 중 많은 수를 요서 지역으로 이주시켜 지배하였다. 7세기 말에 요서 지역에서 거란이 봉기하여 당의 지배력이 약화되자 대조영은 고구려 유민과 말갈인을 이끌고 동모산 근처에서 발해를 세웠다(698).

대조영의 뒤를 이은 무왕은 적극적으로 영토 확장에 나섰다. 발해의 성장에 위기를 느낀 당이 압박해 오자, 발해는 당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기도 하였다. 이어 즉위한 문왕은 당과 친선 관계를 맺고 당의 문물과 제도를 수용하여 체제를 정비하였다.

발해는 9세기 초 선왕 때 이르러 전성기를 맞이하였으며, 이 시기에 서쪽으로는 라오허강, 동북쪽으로는 헤이룽강까지 영역을 확대하였다. 하지만 발해는 9세기 말 이후 국력이 쇠퇴하였고, 거란의 침략으로 멸망하였다(926).

## 발해, 통치 제도를 정비하다

발해는 건국 초기에는 고구려의 제도를 바탕으로 중앙 정치를 운영하였다. 이후 문왕 때 당의 제도와 문물을 받아들여 3성 6부를 중심으로 하는 중앙 통치 제도를 마련하였다.

지방은 5경 15부 62주로 정비하였다. 전략적 요충지에는 5경을 두었고, 지방 행정 중심지나 교통의 중심지에 15부와 62주를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다.

## 고구려를 이은 나라, 발해

발해 온돌 (러시아 연해주) 발해의 온돌은 고구려 온돌 양식(쪽구들)을 계승하였다.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분명히 하였다. 일본에 보낸 외교 문서에서 발해왕은 스스로 고려(고구려)왕이라 하였고, 일본에서도 발해를 고려(고구려)라고 불렀다. 또한, 유물·유적에서도 발해가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 역사 생각하기

### 가야의 발전

삼국 시대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이외에도 부여, 가야 등의 나라가 있었다. 그중 가야는 해상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하여 철을 교역하면서 성장하였다. 가야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알아보자.

삼국 시대 낙동강 일대에서는 금관가야, 대가야 등 여러 나라가 연합한 연맹체인 가야가 성장하였다. 해상 교통의 중심지였던 김해에 위치한 금관가야는 질 좋은 철을 생산하여 낙랑, 왜 등과 활발히 교류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가야 연맹을 주도하였다.

4세기 말에 왜가 신라를 공격하자 광개토 대왕이 군대를 보내 신라를 구원하였다. 이 과정에서 금관가야도 고구려의 공격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이후 연맹의 주도권은 전쟁의 피해를 입지 않은 고령 지방의 대가야로 넘어갔다. 그러나 가야는 여러 소국이 독자적 세력을 유지하여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하였고, 결국 신라에 멸망하였다.

## 역사 사실 이해

1. 가야가 중앙 집권 국가로 발전하지 못한 까닭을 설명해 보자.

##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2. 박물관 누리집에서 가야와 관련된 유물을 찾아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사해 보자.

## 1 중단원 마무리하기

## 개념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선사시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도구		간석기, 토기
주거	이동 생활(막집, 동굴)	정착 생활(움집)
특징	사냥, 채집 중심	농경과 목축 시작

## 고조선

-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
- 위만의 집권(기원전 194): 이후 철기 본격 수용, 정복 전쟁, 중계 무역으로 발전
- 멸망(기원전 108):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
- 8조법으로 사회 질서 유지

## 여러 나라

- 철기 사용: 생산량 증대(철제 농기구), 정복 전쟁 활발(철제 무기)
- 여러 나라 성장: 부여, 고구려, 옥저, 동예, 삼한

## 삼국 시대

- 고대 국가의 특징: 왕권 강화, 율령 반포, 불교 수용 등
- 삼국의 영토 확장과 삼국 통일

4세기	백제 성장(근초고왕)
-----	-------------

5세기	고구려 성장(광개토 대왕, 장수왕)
6세기	신라 성장(법흥왕, 진흥왕)
7세기	나당 동맹 →백제·고구려 멸망 →나당 전쟁 →신라, 삼국 통일

## 남북국 시대

### ●통치 체제의 정비

	통일 신라	발해
중앙	집사부 중심	3성 6부
지방		5경 15부 62주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서당 10정(군사)</li> <li>●신라 촌락 문서</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해동성국으로 불림.</li> <li>●계승</li> </ul>

## 사고력 키우기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다른 종족을 불러들여 ㉡ 같은 종족을 없애는 것은 도적을 끌어들이어 형제를 죽이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 뜻이 매우 명백하여 비록 삼척동자도 가히 깨달을 수 있는데, 애석하다, 우리나라 역사가 들어, 이러한 뜻을 아는 자가 적구나. - 신채호, “독사신문” -

선왕(김춘추)께서 백성의 참혹한 죽음을 불쌍히 여겨 ..... 귀하심을 잊으시고 바다 건너 당에 가서 황제를 뵈고 군사를 청하였다. (이것은) 두 나라를 평정하여 영구히 전쟁을 없애고, 여러 해 동안 깊이 맺혔던 원수를 갚고 백성들의 남은 목숨을 온전히 하고자 함이다. - “삼국사기” -

1. 자료 1의 ㉠, ㉡에 해당하는 나라를 써 보자.

2. 자료 1, 자료 2가 각각 신라의 삼국 통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신라왕이 사신을 보내어 아뢰기를, “왜인이 그 국경에 가득 차 성과 해자를 부수고 ..... 이에 왕께 귀의하여 구원을 요청합니다.” 라고 하였다. .... 왕이 보병과 기병 도합 5만 명을 보내어 신라를 구원하게 하였다. .... (고구려군이) 그 뒤를 급히 추격하여 임나가라의 종발성에 이르니 성이 곧 항복하였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1. 자료 1의 사건이 이후 가야 연맹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이야기해 보자.
2. 자료 1, 자료 2를 바탕으로 당시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유추해 보자.

### 성취 기준 확인하기

1. 삼국의 성립 과정을 중앙 집권적 지배 체제의 특징과 연결하여 이야기해 보자.
2. 통일 신라와 발해의 발전 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자.

## 01

### 삼국의 종교와 사상

고구려는 귀신 · 사직 · 영성에게 제사 지내기를 좋아한다. 10월에 하늘에다 제사 드리면서 크게 모이는데

이름이 ‘동맹(東盟)’이라고 한다. - “삼국사기” -

고구려의 천왕지신총에는 봉황을 타고 하늘을 나는 천왕이 그려져 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하늘

을 숭배하여 제천 행사를 지냈으며, 각 나라의 건국 신화는 대부분 천신 신앙을 바탕으로 이루어졌다.

이후 삼국은 불교를 수용하여 왕권을 강화하였고,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Q1** 초기 삼국이 천신 신앙을 강조한 까닭은 무엇일까?

**Q2** 삼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이 정치 · 사회적으로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 삼국의 왕실, 하늘의 자손임을 내세우다

초기의 삼국은 천신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를 통합하려 하였다. 삼국의 왕실은 시조를 하늘과 연결하여 천신의 자손임을 자처하고, 국가 차원의 제천 행사를 주도하여 권위를 과시하였다.

고구려에서는 매년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백제와 신라의 왕실 역시 자신들이 하늘의 후손임을 강조하고 제사 의례를 통해 연맹체를 통합하였다. 그러나 삼국 초기에는 연맹체를 구성하는 각 부도 나뉘는 시조신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건국 신화로 국가를 통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 천신 신앙

하늘 자체를 신격화하거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인 힘을 신격으로 믿는 신앙이다.

### 고구려의 천신 신앙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웠는데 ..... 천제의 아들이었고 어머니는 하백의 딸이었다. - ‘광개토 대왕릉비문’ -

### 불교를 수용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공고히 하다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해 가는 과정에서 백성을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종교가 필요하였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 불교가 전해졌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전진에서, 백제는 침류왕 때 동진에서 불교를 수용하였으며, 신라는 법흥왕 때 이차돈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삼국의 왕실은 불교 사찰을 세우고, 불교 행사를 성대하게 열어 왕실의 권위를 높이려고 하였다. 이에 불교는 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하는 종교로 자리를 잡았으며, 천신 신앙, 산신 신앙 등 기존의 토착 신앙과 융합되면서 점차 확산되었다.

### 이차돈의 순교

왕 또한 불교를 일으키려고 하였으나 여러 신하가 믿지 않고 이런저런 불평을 많이 하였으므로 근심하였다.

(왕의) 가까운 신하인 이차돈이 아뢰기를 “바라건대 하찮은 신의 목을 베어 여러 사람들의 논의를 진정시키십시오.” 라고 하였다. .... (이차돈의) 목을 베자 잘린 곳에서 피가 솟구쳤는데, 그 색이 우윳빛처럼 희었다. 여러 사람이 괴이하게 여겨 다시는 불교를 헐뜯지 않았다. - “삼국사기” -

###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수용하다

중국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들어온 유학도 삼국의 정치와 문화·사상에 영향을 주었다. 삼국은 유학을 바탕으로 국가 체제를 정비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를 키우려 하였다.



고구려는 소수림왕 때 중앙에 태학을 설립하고 귀족 자제에게 유학을 가르쳤다. 지방에는 경당을 두어 평민 자제에게 유학과 활쏘기를 가르쳤다.

백제는 태학을 설치하였으며 오경박사를 두어 유교 경전을 가르쳤고, 일본에 “논어” 등의 유교 경전을 전해주었다.

또한, 총과 효를 강조한 세속 5계, 임신서기석의 내용에서 신라에도 유학이 수용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학문이 발달하고 중앙 집권 체제가 확립되면서 삼국은 역사서를 편찬하여 왕의 권위를 높이고 국력을 과시하려 하였다. 이에 따라 다양한 역사서가 편찬되었으나, 현재는 전하지 않는다.

### 불로장생을 기원한 도교가 전래되다

중국에서 생겨난 도교는 산천 숭배 사상이나 신선 사상과 결합하여 삼국에 받아들여졌다.

도교는 특히 고구려와 백제에서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하였다.

고구려는 도교의 영향을 받은 사신도 등의 고분 벽화를 남겼다. 또한, 연개소문은 귀족과 연계된 불교 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기존의 불교 사찰을 도교 사원으로 바꾸고 도교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백제는 각종 벽돌이나 백제 금동 대향로 등에 도교적 이상 세계와 신선의 모습을 표현하였다.

### 고구려의 도교

연개소문이 왕에게 아뢰었다. “중국에는 3교(유교, 불교, 도교)가 나란히 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는 도교가 아직까지 없습니다. ....” 왕이 표를 보내 청하니 .... 당에서는 도사 숙달 등 8명과 “도덕경”을 주었다. 이에 불교 사찰을 그들의 숙소로 삼았다. - “삼국사기” -

### 사료로 보는 역사 신라 왕실과 불교

자료 1.

576년, 진지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사륜(또는 금륜)이라 하였고 진흥왕의 둘째 아들이다. - “삼국사기” -

자료 2.

신라 진평왕이 왕위에 올랐다. 이름은 백정(석가모니의 아버지)이고 ..... 왕비는 김씨 마야부인(석가모니의 어머니)으로 갈문왕 복승의 딸이다. 왕은 태어날 때부터 기이한 용모였고, 신체가 장대하고 뜻이 깊고 곧세었으며, 지혜가 밝아서 사리에 통달하였다. - “삼국사기” -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된 이후 신라 왕실에서는 불교식 이름이 널리 사용되었다. 특히 진흥왕

은 아들인 진지왕의 이름을 불교의 이상적인 왕에서 따왔으며, 진평왕과 왕비의 이름은 석가모니의 부모 이름에서 따왔다.

### 생각 키우기

Q1. 자료와 같이 신라 왕실이 불교식 이름을 사용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02

### 남북국 시대의 종교와 사상

수많은 촌락에서 노래하고 춤추며 교화하고 읊고 돌아오니 가난하고 무지몽매한 무리들도 모두 부처의 이름을 알게 되었고, 모두 ‘나무아미타불’을 칭하게 되었다. 원효의 법화가 컸던 것이다. - 일연, “삼국유사” -

원효는 불교 교리를 백성이 쉽게 이해하고 믿을 수 있게 노력하였다. 이로써 왕실을 중심으로 발전한 불교가 백성에게까지 널리 퍼졌다. 남북국 시대에는 불교문화가 꽃을 피웠으며, 유학도 발전하였다.

Q1. 통일 신라와 발해의 불교문화는 어떤 모습이었을까?

Q2. 신라 말에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한 까닭은 무엇일까?

### 불교 사상이 발달하고 불교가 널리 퍼지다

삼국 통일 이후 신라에서는 원효와 의상 등 여러 승려의 활약으로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고, 일반 백성에게도 불교가 널리 퍼졌다.

원효는 ‘모든 것이 오직 한마음에서 비롯된다.’라는 일심 사상을 내세워, 불교 교리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였다. 또한, 백성들에게 불교의 깊은 교리를 몰라도 ‘나무아미타불’만 암송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가르쳐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힘썼다.

의상은 당에서 화염학을 공부하고 돌아와,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조화를 이룬다.’라는 화염 사상을 바탕으로 해동 화염종을 개창하고 많은 제자를 길러 신라 불교 발전에 기여하였다.

한편 혜초는 중앙아시아와 인도 지역의 다섯 천축국을 순례한 뒤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선종과 풍수지리설이 유행하다

신라 말에는 선종이 유행하였다. 선종은 도입 초기에는 신라 왕실의 지원을 받았으나, 참선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교리가 호족에게 큰 호응을 얻으면서 점차 호족과 결합하였다. 선종은 신라 말 호족을 사상적으로 지원하기도 하였으며, 선종 사찰은 지방의 문화 중심지로 성장하였다.

신라 말에는 선종과 더불어 산이나 땅, 하천 등의 모양이 인간의 운명에 영향을 끼친다는 풍수지리설이 유행하였다. 풍수지리설은 금성(경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여, 선종과 함께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 통일 신라, 유학이 발전하다

삼국 통일 이후 신라는 왕권 강화와 체제 안정을 위해 유학을 장려하였다.

신문왕은 국학을 설치하여 유학을 교육하였으며, 원성왕은 유교 경전을 이해한 정도에 따라 관리를 채용하고자 독서삼품과를 마련하였다. 이 시기 6두품 세력은 학문적 능력을 바탕으로 왕에게 정치적 조언을 하고 실무를 담당하여 왕권을 뒷받침하였다.

유학의 장려로 삼국 통일 무렵에는 여러 문장가와 유학자가 배출되었다. 강수는 외교 문서 작성에 능하였으며, 설총은 이두를 정리하고 유학 경전 보급에 힘썼다.

### 이두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을 표기하던 방법 중 하나이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많은 신라인이 당으로 건너가 유학을 공부하였으며, 빈공과에 합격하는 인물도 많았다. 특히 최치원은 당의 유학자와 교류하며 학문을 깊이 연구하였고, 문장으로 이름을 떨쳤다. 한편 진골 출신인 김대문은 “화랑세기” 등을 지어 신라 전통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려 하였다.

### 빈공과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과거 시험이다.

## 발해에서 불교와 유학이 발달하다

발해에서는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문화가 발전하였다. 발해는 5경에 많은 사찰을 세우고, 무덤 위에 탑을 세우기도 하였다. 특히 문왕은 왕권을 뒷받침하기 위해 불교를 적극 장려하였다.

또한, 발해는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수용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강화하고자 하였다. 주자감을 설치하여 유교 경전 교육을 강화하였고, 중앙 통치 기구인 6부의 명칭에는 유교 덕목을 붙였다. 또한, 당에 유학생을 파견하여 문물을 수용하려 노력하였다.

## 사료로 보는 역사 세련된 한문학의 발달

### 발해의 한문학

서리 하늘 달 밝은데 은하수 빛나 나그네는 돌아갈 생각 깊도다.

긴긴밤 시름에 겨워 오래 앉아 있노라니 홀연 들리는 이웃 아낙의 다듬이질 소리 바람결 따라서 끊어질 듯 이어지며 밤 깊어 별이 기울도록 잠시도 못지 않네.

고국을 떠난 후로 저 소리 못 들더니 지금 타향에서 들으니 소리 서로 비슷하네. - 양태사, ‘밤에 다듬이질 소리를 들으며’ -

### 신라의 한문학

황소에게 고하노라. 무릇 바른 것을 지키고 떳떳한 것을 행하는 것을 도(道)라 하고, 위험한 때를 당하여 변통할 줄을 아는 것을 권(權)이라 한다. .... 너는 모름지기 나아갈 것인가 물러날 것인가를 잘 헤아리고, 잘된 일인가 못된 일인가 분별하라. 배반하여 멸망당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귀순하여 영화를 얻는 것이 낫다. - 최치원, ‘토황소격문’ -

## 문화유산 속의 고대의 종교와 사상

삼국과 남북국 시대를 거치며 불교와 유교, 도교 등 새로운 사상이 들어와 우리 고유의 사상과 융합하였다. 이들 사상이 녹아 있는 문화유산을 살펴보자.

### 도교

도교는 삼국 시대 귀족층을 중심으로 전래되어 유행하였다. 삼국은 도교 사상을 담은 다양한 문화유산을 남겼다.

## 불교

불교는 삼국이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수용되어 왕실의 보호 속에서 성장하였다. 불교의 수용과 함께 다양한 불교 예술도 발전하였다.

## 유학

유학은 중국과의 교류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삼국은 유학을 장려하여 학식이 풍부하고 국가에 충성하는 인재를 길렀으며, 유학을 바탕으로 정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 역사 체험하기

### 활동 준비

활동 내용 : 고분 벽화 보고서 만들기

모둠 인원 : 4 ~ 6인

모둠원 역할 : 자료 조사하기, 보고서 제작하기, 발표하기

유의 사항 : 충분한 토의 과정을 거쳐 적절한 고분 벽화를 선택한다. 고분 벽화가 제작될 당시의 종교와 풍속, 생활 방식 등을 고려하여 분석한다. 고분 벽화 분석 과정에서 역사적 오류가 없도록 한다.

### 고분 벽화 보고서 만들기

고분 벽화는 고대인의 일상생활과 풍속, 신앙과 종교 생활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다양한 고분 벽화를 찾아보고, 그 속에 담긴

당시 시대상을 알아보자.

### 활동하기

1. 자료 조사하기 : 관련 서적, 인터넷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삼국 및 남북국 시대의 고분 벽화를 조사한다.
2. 자료 분석 및 토의하기 : 조사한 벽화 중에서 분석할 벽화를 토의로 정한다. 벽화의 내용을 분석하고, 그 벽화에 담긴 당시 사회상을 유추한다.
3. 제작하고 발표하기 : 분석한 내용을 보고서로 만든다. 보고서의 내용을 모둠별로 발표한다.

## 평가하기

### 평가 요소

개별 평가	1 나는 활동 내용을 잘 이해하였다. 2 나는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제시하였다. 3 나는 모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활동에서 느낀 점을 써 보자.
동료 평가	1 모둠 활동 결과물이 주제에 맞게 구성되었다. 2 모든 모둠원이 활동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활동 과정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친구의 모습을 써 보자.

## 2 중단원 마무리하기

### 개념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1. 삼국의 종교와 사상

신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의미: 하늘 자체나 하늘에 있는 초인적 힘을 믿는 신앙</li><li>● 영향: 제천 행사, 제사 의례 등을 통해 국가 통합, 왕실 권위 강화</li></ul>
----	---

불교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구려: 소수림왕 ●백제: 침류왕</li> <li>●신라: 법흥왕 때 공인(의 순교)</li> </ul>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권을 이념적으로 뒷받침하고 지배층의 통치를 합리화</li> <li>●천신 신앙, 산신 신앙 등 기존 토착 신앙과 융합되며 점차 확산</li> </ul>
	도입	국가 체제 정비, 인재 양성 목적
	발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구려: 태학(중앙), 경당(지방) 설치</li> <li>●백제: 오경박사, 일본에 유교 경전 전파</li> <li>●신라: 임신서기석, 세속 5계 등에 영향</li> </ul>
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입: 산천 숭배 사상, 신선 사상과 결합, 고구려와 백제의 귀족을 중심으로 유행</li> <li>●발전: 고구려 사신도, 백제 금동 대향로, 백제 산수무늬벽돌 등에 영향</li> </ul>	

## 2.남북국의 종교와 사상

통일 신라			
	불교	주요 승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4 : 일심 사상, 불교 대중화</li><li>● 의상: 화엄 사상, 해동 화엄종 개창</li></ul>
			신라 말에 유행, 호족의 호응 얻음.
	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왕권 확립과 체제 안정을 위해 유학 강조</li><li>● 국학(신문왕), 독서삼품과(원성왕) 설치</li></ul>	
풍수지리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방도 명당이 될 수 있다고 주장</li><li>● 선종과 함께 호족의 사상적 기반이 됨.</li></ul>		
발해			
	불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배층을 중심으로 불교문화 발전</li><li>● 왕권을 뒷받침하기도 함.</li></ul>	
	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유교 정치 이념 수용, 중앙 집권 강화</li><li>● 주자감 설치, 6부 명칭에 유교 덕목 사용</li></ul>	

### 사고력 키우기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이때 원광이 수에서 돌아와 가슬갑에 머문다는 것을 듣고 두 사람은 문에 나아가 고하여 말하였다. “..... 원컨대 한 말씀 내리셔서 평생 동안의 교훈으로 삼게 해 주십시오.” 원광이



말하였다. “ 불교에는보살계가 있으니 그것은 열 가지로 구별되어 있다. 너희들은 다른 이들의 신하와 자식된 자이니 능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세속의 다섯 개의 계율이 있으니 첫째는 충성으로 임금을 섬긴다, 둘째는 효로 부모를 섬긴다, 셋째는 친구와 사귀에 믿음이 있게 한다, 넷째는 전투에 임하여 물러섬이 없다, 다섯째는 살생을 함에 가림이 있게 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행함에 소홀함이 없게 하라.”- 일연, “ 삼국유사 ” -

1. 윗글에 나타난 종교와 사상은 무엇인지 써 보자.

2. 윗글에 나타난 종교와 사상이 삼국의 중앙 집권 체제 강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지 이야기해 보자.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원성왕 4년(788년) 봄에 처음으로 ㉠ 을/를 정하여 출사케 하였다. “춘추좌씨전 ” 이나 혹은 “ 예기 ”, “ 문선 ” 을 읽고 그 뜻에 능통하며 “논어 ” 와 “효경” 에 모두 밝은 자를 상품으로, “ 국례 ” 와 “ 논어 ”, “효경 ” 을 읽은 자를 중품으로, “ 국례 ”와 “효경 ” 을 읽은 자를 하품으로 삼았다. 혹 오경에 널리 통달한 자는 등급을 뛰어넘어 발탁해등용하였다. 예전에는 오직 궁술로써만 사람을 선발하였으니, 이때에 이르러 이를 개정하였다. - “ 삼국사기 ” -

1. 윗글의 밑줄 친 ㉠에 들어갈 제도를 써 보자.

2. 원성왕이 ㉠과 같은 제도를 실시한 목적을 설명해 보자.

### 성취 기준 확인하기

1. 고대 사회를 지탱한 종교와 사상을 시기별로 파악하여 정리해 보자.

2. 종교와 사상이 고대 사회의 지배 체제를 어떻게 뒷받침하였는지 이야기해 보자.

01

###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

#### 황제께서 만세토록 살기를 기원합니다(皇帝萬歲願).

하남 교산동 마애 약사여래 좌상에는 ‘황제’, ‘만세’ 등의 용어가 새겨져 있어 당시 고려인들이 고려를 황제국으로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고려는 변동하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속에서 고려 중심의 독자적 천하관을 형성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통치 체제를 정비해 나갔다.

Q1 고려는 어떻게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을까?

## Q2 고려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 변동에 어떻게 대응하였을까?

### 고려, 후삼국을 통일하다

918년,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신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왕건은 고구려를 계승한다는 의미로 나라 이름을 ‘고려’라 하고, 이듬해 송악(개성)으로 수도를 옮겼다.

태조는 즉위 이후 신라에 우호적인 정책을 펼쳤다. 이에 935년,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해 와 전쟁 없이 신라를 통합하였다. 936년에는 왕위 계승 문제로 내분이 일어난 후백제를 공격하여 멸망시키고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또한, 거란에 멸망한 발해 유민도 적극적으로 포용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고려는 후삼국을 비롯하여 발해 유민까지 포함한 민족의 재통합을 이루었다.

### 발해 유민의 유입

세자 대광현과 신하들이 ..... 남은 무리를 이끌고 도망쳐 온 자들이 수만 호였다. 왕(태조)이 그들을 매우 후하게 대우하여, 대광현에게 ‘왕계’라는 성과 이름을 내려 주면서 ..... 신하들에게도 모두 작위를 내려 주었다. - “고려사절요” -

### 호족을 통합하고 북진 정책을 추진하다

태조는 호족을 통합하고, 민생을 안정시켜 국가의 기틀을 다지려 하였다. 유력한 호족 가문과 혼인을 하거나 성씨를 하사하는 등 호족을 우대하는 한편, 사심관 제도와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호족을 통제하고 지방 통치를 보완하였다.

민생 안정을 위해 백성의 조세 부담을 줄이고 빈민 구제 기관인 흑창을 설치하였으며, 후대 왕에게는 훈요 10조를 남겨 통치의 교훈으로 삼게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바탕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 중시하고, 북쪽으로 영토를 넓혀 청천강 유역까지 진출하였다. 그리고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을 적대하였다.

### 사심관 제도

중앙 고위 관료를 사심관으로 삼아 출신 지역을 다스리게 한 제도이다. 고려에 항복한 신라 경순왕(김부)을 경주의 사심관으로 삼은 데에서 비롯되었다.

### 기인 제도

지방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삼아 수도에 머물게 하고 출신지의 일을 자문하게 한 제도이다.

## 왕권을 강화하다

태조가 죽은 뒤 왕위 계승을 둘러싸고 외척 세력 사이에 치열한 다툼이 일어났다. 불안정한 정치 상황에서 왕위에 오른 광종은 호족과 외척 세력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였다.

광종은 노비안검법을 시행하여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을 해방하였다. 그 결과 양인의 수가 늘어나 국가 재정 기반이 확충되었고, 공신과 호족의 경제·군사적 기반은 약화되었다.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적 소양을 갖춘 관리를 등용하여 왕권을 뒷받침하게 하였으며, 공복을 제정하여 관리의 위계를 세웠다.

그리고 수많은 공신과 호족 세력을 숙청하였다. 또한, 황제 칭호와 ‘광덕’, ‘준풍’ 등 독자적 연호를 사용하고, 개경을 ‘황도’로 칭하는 등 고려가 황제국임을 드러내 왕의 권위를 높였다.

##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다

성종은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 유교 정치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중앙 통치 기구는 기존의 제도를 바탕으로 중국의 제도를 참조하여 2성 6부로 정비하였으며,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였다.

또한, 중앙의 국자감을 정비하고, 지방에는 경학박사를 파견하는 등 유학 교육을 장려하였다.

## 사료로 보는 역사 고려 통치 체제의 정비

### 태조의 정책

#### 훈요 10조

4. 우리 동방은 옛날부터 중국의 ..... 문물과 예악 제도를 따랐으나, 지역이 다르고 인성도 각기 다르므로 반드시 같게 할 필요는 없다. 거란은 짐승 같은 나라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 제도를 삼가 본받지 말라.

5. .... 서경은 수덕이 순조로워서 ..... 대업을 만대에 전할 땅이다. .... 왕이 그곳에 가서 100일이 넘도록 머물러 나라의 안녕을 이루도록 하라.

10. 나라를 가진 자나 집을 가진 자는 근심이 없더라도 경계를 늦추지 말고, 유교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어 옛일을 거울삼아 지금을 경계해야 한다. - “고려사” -

## 광종의 정책

### 노비안검법

광종 7년(956)에 노비를 조사해서 옳고 그름을 분명히 밝히도록 명령하였다. 이 때문에 주인을 배반하는 노비들을 도저히 억누를 수 없었으므로, 주인을 업신여기는 풍속이 크게 유행하였다. 사람들이 다 수치스럽게 여기고 원망하였다. 왕비도 간절히 말렸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 “고려사” -

### 과거제

삼국 이전에는 과거법이 없었다. 고려 태조 때 처음으로 학교를 세웠으나 과거로 인재를 뽑는 데까지는 이르지 못했다. 광종이 쌍기의 의견을 받아들여 과거로 인재를 뽑게 하였다. 이때부터 학문을 숭상하는 풍조가 일어났고 그 법은 대체로 당의 제도를 따른 것이다. - “고려사” -

## 성종의 정책

### 최승로의 시무 28조

7. .... 청컨대 지방관을 두소서. 비록 한 번에 모두 다 보낼 수 없더라도 우선 10여 개 주현에 합하여 1명의 관리를 두고, 그 아래 각기 2, 3명의 관원을 두어 백성을 돌보게 하소서.

13. 우리나라에서는 봄에는 연등회, 겨울에는 팔관회를 열어 사람을 많이 동원하여 힘든 일을 시키니, 이를 줄여서 백성이 힘을 펴게 하소서.

20. 불교를 믿는 것은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입니다. 수신은 내세를 위한 바탕이며,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의 급한 일입니다. 오늘 은 지극히 가깝고, 내세는 먼데, 가까운 것을 버리고 먼 것을 구하는 일은 잘못이 아니겠습니까? - “고려사절요” -

### 통치 체제를 정비하다

고려는 중국의 제도를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 중서문하성과 상서성, 6부를 중심으로 중앙 정치 체제를 운영하였다. 그리고 대간을 두어 왕과 관리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관리의 임명과 해임에 동의할 수 있도록 하여 권력의 견제와 균형을 꾀하였다. 도병마사와 식목도감 같은 고려만의 독자적인 정치 기구도 두었다.

### 역사 깊이 보기 :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

고려에서는 재추가 국가 중대사를 도병마사나 식목도감에 모여 의논하고, 왕과 함께 결정하였다. 또한, 대간에게는 관리 인사나 법률 개정의 타당성을 심사하는 권한을 주었다.

고려는 재추를 중심으로 하는 합의제 체제와 대간과 같은 권력 견제 기구를 마련하여 권력의 상호 견제와 조화를 추구하는 유교 정치 이념을 실현하고자 하였다.

재추 : 재상과 추밀

고려 초기에는 호족의 세력이 강하여 정부의 지방 통제력이 강하지 못하였다. 성종 때 처음으로 12목을 설치하여 지방관을 파견하였고, 향리제를 정비하여 호족을 향리로 삼았다.

현종 때는 전국을 5도 양계로 나누고, 그 밑에 군현과 진을 설치하였다. 군현에는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과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있었으며, 특수 행정 구역으로 향·부곡·소 등이 있었다. 속현과 특수 행정 구역은 주현에 파견된 지방관이 향리의 도움을 받아 다스렸다. 이 밖에 수도 주변에 설치한 경기와 풍수지리설에 따라 설치한 3경이 있었다.

###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를 등용하다

고려는 과거와 음서 등으로 관리를 선발하였다. 과거는 문신을 선발하는 문과를 중심으로 시행되었으며, 승려에게 승계를 내려 주는 승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가 있었다. 음서는 종실이나 공신, 고위 관리의 자손에게 관직을 내려 주는 제도였다. 또한, 학식과 덕행이 뛰어난 인물을 특별히 추천하여 관리로 삼는 천거도 있었다.

고려는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관리를 등용하여 고대 사회의 폐쇄성을 극복하려 하였다.

### 생각 키우기

Q1 고려의 합의제 체제를 보여주는 중앙 정치 기구는 무엇인지 찾아보자.

Q2 고려가 제시된 자료와 같이 중앙 정치 체제를 운영한 까닭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고려, 송, 거란, 세력 균형을 이루다

10세기 동아시아에서는 고려·송·거란을 중심으로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5대 10국을 통일한 송은 북방의 거란과 대립하였다. 고려는 송과 국교를 맺어 선진 문물을 받아들였으며,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은 적대하였다.

993년, 거란은 송을 공격하기 전 후방을 안정시키기 위해 고려를 침입하였다. 이때 고려의 서희는 거란과 담판을 해 송과 관계를 끊고 거란과 외교 관계를 맺을 것을 약속하고,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이후 고려가 계속 송과 왕래하자 거란은 다시 고려를 침략하여 개경을 함락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거란의 3차 침입 때 강감찬이 귀주에서 거란군을 크게 격파하였다(귀주 대첩, 1019). 그 결과 고려·송·거란 사이에 세력 균형이 이루어져 동아시아 국제 질서가 안정되었다.

## 다원적 국제 질서

10~12세기 동아시아에서는 한 나라가 국제 관계를 주도하는 것이 아닌, 여러 나라가 세력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 여진과 관계가 변화하다

12세기에 들어 동아시아에 변화가 나타났다. 천리장성 북쪽에 거주하던 여진이 부족을 통합하면서 고려와 충돌이 잦아졌다. 이에 고려는 윤관의 건의로 별무반이라는 특수 부대를 편성하고, 여진을 공격해 동북 9성을 쌓았다. 그러나 이 지역을 찾으려는 여진의 끊임없는 침입으로 방비가 어려워지자 여진의 충성 맹세를 받고 동북 9성을 돌려주었다. 세력을 키운 여진은 금을 건국하고 고려에 형제 관계를 요구하였으나 고려는 이를 거부하였다. 이후 거란을 멸망시킨 금이 고려에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고려에서는 이를 두고 논쟁이 있었으나 결국 수용하였다.

## 천리장성

거란의 3차 침입 이후 고려가 북방 민족의 침략을 막기 위해 압록강 하구에서 동해의련포에 이르는 지역에 쌓은 성이다.

## 별무반

여진을 상대하기 위해 편성된 기병 중심의 부대이다. 신기군(기병), 신보군(보병), 향마군(승려)으로 구성되었다.

## 금의 군신 관계 요구

금이 군신 관계를 요구하자 고려 내부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당시 집권하고 있던 이자겸 세력의 주장으로 군신 관계를 수용하였다.

## 역사 깊이 보기 : ‘해동 천하’ 의식을 가진 고려

### 황제국으로의 고려

- 천자, 폐하, 표 등의 용어와 황제의 복색 사용
- 황제가 하늘에 올리는 제천 의식인 환구제 시행
- 여진, 탐라, 우산 등을 제후국으로 삼아 천자국 체제 구축

•철리국 에서 사신을 보내 예전처럼 복종할 것을 청하는 표문(황제에게 올리는 글)을 올렸다. - “고려사 ” -

•해동 천자는 지금의 부처라, 하늘을 도와 교화를 펼치러 오셨네. - “고려사 ” -

고려는 대외적으로는 중국 및 북방 민족과 군신 관계를 맺고 있었지만, 대내적으로는 고구려와 같이 독자적인 천하관을 형성하고 있었다. 고려왕은 ‘해동 천자’를 자처하였으며, 여진, 우산, 탐라 등을 제후국으로 삼아 ‘해동 천하’를 형성하였다.

## 02

### 고려 사회의 동요와 무신 정권

딸이 셋 있는데 모두 임금에게 시집갔다. 맏딸은 연덕 공주(인예 태후)로 왕비이며, 태자(순종)와 국원후(선종)가 그 아들이다. 둘째는 수령 공주(인경 현비)이니 조선후가 그 아들이고, 셋째는 송경 공주(인절 현비)다. - ‘이자연 묘지명 ’ -

이자겸의 조부였던 이자연은 세 딸을 문종과 혼인시켜 막강한 권력을 누렸다. 이처럼 현종 이후 일부 문벌 가문은 왕실과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이 일어나 고려 사회는 점차 동요하였고, 무신 정권이 들어섰다.

**Q1**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 천도 운동으로 고려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Q2** 무신 정권 시기 농민과 하층민이 봉기한 까닭은 무엇일까?

### 고려 사회가 동요하다

성종 이후 국가 체제가 안정되며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의 고위 관직을 차지한 문벌이 형성되었다. 문벌은 왕실 및 다른 문벌 가문과 폐쇄적으로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차지하였다.

특히 경원 이씨 가문은 여러 대에 걸쳐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 권력을 독점하였다. 이자겸 대에 이르러 경원 이씨 가문의 세력은 왕권을 위협할 정도가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인종 때 이자겸은 난을 일으키고 스스로 왕위에 오르려 하였으나 실패하였다(1126).

이자겸의 난으로 왕실의 권위가 떨어지고, 지배층의 분열이 심화되었다. 인종은 실추된 왕권을 회복하기 위해 서경 세력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묘청 등 서경 세력은 풍수지리설을 내세워 서경으로 수도를 옮길 것을 건의하였다. 나아가 황제로 칭하고 연호를 사용하며, 금을 정벌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김부식 등 개경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에 묘청은 나라 이름을 ‘대위’, 연호를 ‘천개’라 정하고 서경에서 반란을 일으켰다(1135). 묘청의 난이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되면서, 서경 천도 운동은 실패로 끝이 났다.

### 서경 세력의 주장

저희들이 보건대 서경 임원역의 땅은 음양가들이 말하는 대화세(명당)의 땅입니다. 이곳에 궁궐을 짓고 옮겨 앉으시면 천하를 다스릴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이 예물을 가져와서 스스로 행복할 것이지요, 주변의 서른여섯 나라가 모두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 “고려사” -

### 개경 세력의 주장

금년 여름 서경 대화궁에 30여 군데나 벼락이 떨어졌습니다. 서경이 만약 좋은 땅이라면 하늘이 이렇게 하였을 리 없습니다. .... 또 서경은 아직 추수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행차하시면 농작물을 짓밟을 것입니다. 이는 백성을 사랑하고 물건을 아끼는 뜻과 어긋납니다. - “고려사” -

### 무신 정권이 수립되다

이자겸의 난과 서경 천도 운동 등 혼란으로 무신의 역할은 더욱 커졌다. 하지만 여전히 정치는 일부 문벌과 문신을 중심으로 운영되었고, 무신은 문신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았다. 의종도 측근 세력과 향락에 빠져 있었다. 이에 불만을 품은 정중부와 이의방 등 무신 세력은 무신 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잡았다(1170).

무신 정권 초기에는 권력 다툼으로 정국이 혼란하였으나, 최충헌이 권력을 잡으며 점차 안정되었다. 최충헌은 집권 초기에는 개혁안을 제시하고 혼란을 극복하려고 하였으나 실제로는 정권 유지에 주력하였다.

최고 집권 기구로 교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력을 독점하였고, 사병 기구였던 도방을 확대하여 신변을 보호하였다.

최충헌의 아들 최우는 정방을 설치하여 인사권을 장악하고 삼별초를 조직하여 군사적 기반을 다졌다. 이를 바탕으로 최씨 정권은 4대에 걸쳐 60여 년간 지속되었다.

### 삼별초

최우가 설치한 야별초에서 비롯되었다. 이후 야별초가 좌·우별초로 나뉘고, 몽골의 포로가 되었다가 탈출한 사람으로 조직한 신의군을 합하여 삼별초가 되었다.

### 농민과 하층민이 봉기하다

무신 정변 이후 일어난 권력 투쟁으로 정부의 지방 통제력은 약화되었으며 정권을 잡은 무신들은 토지를 약탈하고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에 특수 행정 구역인 공주 명학소에서는 망이·망소이가, 경상도 지역에서는 운문의 김사미와 초전의 효심이 봉기하는 등 전국 곳곳에서 농민과 하층민의 봉기가 잇따랐다.



한편 무신 정변 이후 천인 출신 권력자가 등장하며 신분 질서가 흔들렸다. 이에 신분 차별에 저항하여 전주의 관노비가 봉기하였으며, 최충헌의 사노비인 만적도 개경에서 봉기를 계획하였으나 사전에 발각되었다.

### 망이 · 망소이의 난

이미 우리 고향을 현으로 승격하고 또 수령을 두어 어루만지고 위로하더니, 돌이켜 다시 군대를 일으켜 토벌하러 와서 우리 어머니와 아내를 옥에 가두었으니 그 뜻은 어디에 있는가? 차라리 칼날 아래에서 죽을지언정 끝내 항복하여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개경까지 가고야 말겠다. - “고려사” -

### 사료로 보는 역사 무신 집권기 신분 질서의 동요

#### 자료 1. 이의민의 신분

이의민은 경주 사람으로 그의 부친 이선은 소금과 채를 파는 일을 하였고 모친은 영일현 옥령사의 여종이었다. .... 정중부의 난 때에는 이의 민이 많은 사람을 죽였으므로 종랑장이 되었다가 곧이어 장군으로 승진하였다. - “고려사” -

#### 자료 2 만적의 주장

사노비 만적 등이 북산에 나무하러 갔다가 노비들을 모아 놓고 말하였다. “..... 장수와 재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어찌 따로 있겠는가. 때가 오면 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만 어찌 채찍 아래에서 몸을 고생시킬 수 있겠는가.” - “고려사절요” -

### 생각 키우기

Q1. 만적이 자료 2. 와 같이 주장한 까닭을 자료 1. 을 통해 설명해보자.

03

### 몽골(원)의 간섭과 정치 변화

원의 연호인 지정의 사용을 중지하고 ..... 기철 등이 임금의 위세를 빙자하여 나라의 법도를 뒤흔드는 일이 벌어졌다. .... 아아 ! 반란을 제압하여 나라를 정상으로 회복하였으니 마땅히 관용의 은혜를 베풀어야 할 것이며, 어진 이와 능력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융성한 태평성대를 이루고자 하노라. - “고려사” -

공민왕은 원·명 교체기를 이용하여 원의 세력을 등에 업고 황포를 부리던 친원 세력을 제거하고, 반원 자주 정책을 펼쳤다. 공민왕의 개혁 정책을 바탕으로 성장한 신진 사대부도 고려 사회를 개혁하려 하였다.

Q1 몽골(원)의 영향으로 고려 사회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Q2 고려 말 성리학을 수용한 신진 사대부의 개혁 방향은 무엇일까?

### 몽골의 침략에 맞서 싸우다

13세기 초에 칭기즈 칸이 몽골을 통합하며 세력을 확대하였다. 고려는 고려에 들어온 거란족을 격퇴하는 과정에서 몽골과 외교 관계를 맺었다(1219). 이후 몽골은 과도한 공물을 요구하며 고려를 압박하였고, 몽골 사신이 귀국길에 살해된 사건을 구실로 고려를 침입하였다(1231).

고려는 일단 몽골과 강화를 맺고 수도를 강화도로 옮겨 장기 항전을 준비하였다. 다시 몽골이 쳐들어오자, 처인성, 충주성 등지에서 일반 백성과 하층민까지 몽골군에 대항하였다. 그러나 몽골의 거듭된 침입으로 국토는 황폐해졌고, 백성의 고통은 심해졌다. 결국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1270).

한편 개경 환도를 반대한 삼별초는 진도, 제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며 항전하였지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게 진압되었다(1273).

### 몽골(원)이 간섭하고, 권문세족이 등장하다

몽골(원)과 강화 이후 고려왕은 원의 공주와 혼인하여 원 황제의 부마가 되었으며, 고려 왕실의 용어와 관제도 제후국 체제로 격하되었다.

원은 다루가치라는 관리와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되었던 정동행성을 통해 고려의 내정에 간섭하고, 고려 영토에 쌍성총관부, 동녕부, 탐라총관부 등을 설치하였다. 또한, 금, 은, 인삼 등의 물품과 공녀, 환관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다.

원 간섭기에는 친원적 성향의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등장하였다. 권문세족은 도평의사사를 장악하고, 농장과 노비의 소유를 확대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그 결과 양인의 수가 줄어들어 국가 재정이 악화되었다.

### 도평의사사

고려 후기의 최고 행정 기구이다. 군사 문제를 담당하던 도병마사가 확대되면서 총렬왕 때 도평의사사로 명칭이 바뀌었고, 일반 행정까지도 관장하게 되었다.

## 공민왕이 개혁을 추진하다

14세기 중엽, 원의 쇠퇴를 계기로 공민왕은 반원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다. 변발, 몽골식의복 등 몽골식 풍습과 제도를 폐지하였으며, 기철 등 친원 세력을 제거하였다. 고려 정치에 간섭하던 정동행성 이문소를 폐지하고, 쌍성총관부를 공격하여 철령 이북의 땅을 되찾았다.

한편 신돈을 등용하고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여 권문세족 등이 불법으로 빼앗은 토지와 억울하게 노비로 삼은 양민을 되돌려 놓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균관과 과거제를 정비하고 신진 사대부를 등용하여 개혁을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공민왕의 개혁은 권문세족의 반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에 따른 혼란 등으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결국 신돈이 제거되고 공민왕이 시해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다.

## 정동행성 이문소

정동행성의 부속 관서로 원과 관계된 범죄를 다스렸다.

## 신진 사대부가 성장하다

성리학은 안향이 원에서 들여와 고려에 전해졌고, 충선왕이 원에 세운 만권당에서 이제현이 원의 학자와 교류하며 이해의 폭이 넓어졌다. 성리학이 고려 과거 시험의 과목에 포함되면서,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늘어났다. 특히 공민왕 때 성균관을 재정비하고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교육하면서 신진 사대부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 신진 사대부의 개혁

400여 년 동안 말세의 폐단이 어찌 없을 수 있겠습니까. 전제(田制)가 특히 심합니다. 경계가 바르지 못하면 권세가가 경병하게 되니 ..... 만약 에 땅 주인이 하나라면 다행이겠지만 혹 3~4집이거나 혹 7~8집인 경우 도 있습니다. .... 청컨대 토지 대장을 위주로 공문서에 표시된 내용을 참작한다면 (땅을) 빼앗으려 다투는 것은 바로잡힐 것이며 새로 개간하는 것은 따라서 헤아려질 것입니다. - “ 고려사 ” -

고려 후기에 원의 영향을 받아 전해진 성리학은 철학적 측면보다는 현실 실천 윤리 측면을 강조하였다. 신진 사대부들은 이러한 성리학 이념을 바탕으로 토지 문제, 불교의 폐단 등을 비판하며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혁하고자 하였다.

## 사료로 보는 역사 성균관의 정비

공민왕 16년(1367)에 성균관을 다시 정비하고 이색을 판개성부사 겸 성균대사성으로 삼았다. .... 이전에는 성균관의 학생이 수십 명에 불과하였다. 이색이 다시 가르치는 방법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을 정도였다. 이에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서로 함께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정주 성리학이 비로소 크게 일어나게 되었다. - “고려사” -

공민왕이 성균관을 재정비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연구와 교육이 본격화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장한 신진 사대부는 적극적으로 현실을 개혁하여 고려 사회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역사 생각하기 : 고려의 활발한 대외 교류

고려는 송, 여진, 거란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과도 교류하였으며, 수도인 개경 근처의 벽란도는 국제 무역항으로 번성하였다. 고려의 활발한 대외 교류 모습을 살펴보자.

#### 벽란도

벽란도는 송, 거란, 여진(금), 일본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상인까지 드나드는 국제 무역항이었다. 벽란도에 드나들던 아라비아 상인은 고려를 세계에 알렸다.

#### 이슬람 상인의 왕래

대식국(아라비아)의 상인 보나합 등이 와서 수은, 용치(큰 동물의 이빨) ..... 등의 물품을 바쳤다. 담당 관리에게 명하여 객관에서 우대하며 대접하게 하였고, 돌아갈 때에는 황금과 명주를 넉넉하게 하사하였다. - “고려사” -

#### 신안선에서 발견된 유물

신안선은 원을 출발하여 일본으로 가던 도중 침몰한 배이다. 이 배에는 중국 도자기뿐만 아니라 고려청자, 향신료, 동전 등 많은 물품과 목간 등이 실려 있어 당시 대외 무역의 규모와 내용을 유추할 수 있다.

###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1. 벽란도가 고려의 국제 무역항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지리적 배경을 유추해 보자.

####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2. 고려의 대외 교류 활동으로 알 수 있는 고려 사회의 성격을 이야기해 보자.

### 3 중단원 마무리하기

#### 개념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고려의 건국과 발전	●건국과 발전	
	태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고려 건국, 후삼국 통일</li> <li>●호족 통합, 민생 안정, 복진 정책</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왕권 강화 정책</li> <li>●노비안검법, 과거제 시행, 관리 복색 제정</li> <li>●황제 칭호와 연호 사용</li> </ul>
	성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통치 체제 정비: 최승로의 2</li> <li>●12목 설치, 지방관 파견, 국자감 정비</li> </ul>
	●통치 체제	
	중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서문하성과 상서성, 6부 중심</li> <li>●대간: 관리 감찰 및 권력 견제</li> </ul>
	지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5도 양계, 경기, 3경</li> <li>●주현(지방관 파견), 속현과 특수 행정 구역</li> </ul>
	인재 등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과거: 문과 중심 시행</li> <li>●음서: 종실, 공신, 고위 관리 자손에게 관직 수여</li> </ul>
	●대외 관계	
	10세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란: 강동 6주(서희), 귀주 대첩(강감찬)</li> <li>●고려·거란·송 사이의 세력 균형</li> </ul>
	12세기 이후	편성, 동북 9성 개척 → 동북 9성 반환 → 금(여진)과 사대 관계 맺음.

무신 정권		
	배경	문벌 사회의 동요, 무신 차별
	변동	권력 다툼 → 4 집권 이후 안정
	영향	농민과 하층민 봉기(망이 · 망소이, 만적 등)
원 간섭기		
	간섭	원의 부마국, 관제 격하, 내정 간섭
	영향	권문세족이 새로운 지배 계층으로 등장(도평의사사 장악, 농장과 노비를 확대)
공민왕 개혁		
	개혁 정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몽골식 풍습· 제도 폐지, 친원 세력 제거</li> <li>● 설치, 성균관·과거제 정비(신진 사대부 성장에 영향)</li> </ul>
	실패	권문세족의 반대,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 사고력 키우기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태조 18년(935)에 신라의 왕 김부가 항복해 오자 신라국을 없애서 경주로 삼고, 김부를 경주의 ㉠(으)로 임명하여 부호장 이하의 관직 등에 관한 일을 맡게 하였다. 이에 여러 공신들 역시 이를 본받아 각각 자기 주의 ㉠이/가 되게 하였다. - “고려사” -

국초에 향리의 자제를 선발하여 서울에 인질로 삼고, 또 그 고을의 일을 자문하는 일에 대비하게 하였다. 이를 ㉡(이)라고 불렀다. - “고려사” -

1. 윗글의 ㉠, ㉡에 들어갈 단어를 써 보자.

2. 고려 태조가 위와 같은 제도를 실시한 목적을 설명해 보자.

3.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신돈이 ㉠을/를 설치할 것을 청하고 스스로 판사가 되어 전국에 방을 붙여 알렸다. “근래에 기강이 크게 무너져서 탐욕을 부리는 것이 풍습이 되었으며, ..... 사람들이 대대로 업으로 이어온 토지를 권세 있는 집에서 거의 다 빼앗아 차지하였다. 일부는 이미 판결이 났는데도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일부는 백성을 노예로 만들기도 하였다. ..... 이제 도감을 설치하여 바로잡고자 하여 개경은 15일을 기한으로 하여, 여러 도는 40일을 기한으로 하여 스스로 잘못을 알고 고치는 자는 (죄를) 묻지 않을 것이나, 기한을 넘겨 일이 발각되는 자는 죄를 조사하여 다스릴 것이며 망령되게 소송하는 자는 도리어 처벌하겠다.” 명령이 나가자 권세가 중에 토지와 백성을 빼앗은 자들이 그 주인에게 많이 돌려주었으며, 전국에서 기뻐하였다. - “고려사” -

1. 윗글의 ㉠에 들어갈 기구를 써 보자.

2. 공민왕이 위와 같은 개혁을 추진한 까닭을 서술해 보자.

### 성취 기준 확인하기

1. 고려의 통치 체제 정비 과정을 표로 정리해 보자.

2. 고려의 통치 체제의 변화를 국제 질서의 변동과 연결하여 이야기해 보자.

## 01

### 고려의 사회

•신축년 5월 10일에 대구 전 호정 서감부를 위해 만들었다.

•맑은 청자 벼루 1개, 황하사



화려한 기술이 돋보이는 청자 버루는 한 사찰이 전라도 강진 대구소의 전직 향리를 위해 만든 것이다.

고려 시대의 향리는 지방의 세력가이면서, 과거로 중앙 관리가 될 수도 있는 계층이었다. 고려 시대에는 양천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계층이 존재하는 다원적 신분 구조가 나타났다.

**Q1 고려의 신분 구조는 어떠하였을까?**

**Q2 고려 시대 향리는 어떤 역할을 하였을까?**

### 양천제로 신분을 나누다

고려의 신분 제도는 법제적으로 양인과 천인으로 구분된 양천제였다. 양인은 자유민으로 납세와 군역의 의무를 졌으며, 관직에 진출할 수 있었다. 양인은 다시 관직 등 국가의 직역을 맡은 정호와 직역이 없는 백정 등으로 구분되었다. 천인은 비자유민으로 대부분이 노비였다.

### 백정

정호와 달리 특정한 직역이 없는 계층으로 일반 농민을 의미한다.

### 다양한 지배층이 존재하다

지배층의 상위에는 대대로 고위 관직에 진출한 문벌이 있었다. 문벌은 왕실이나 다른 문벌 가문과 혼인하여 권력을 독점하였고, 과거, 음서 등으로 관직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직역의 대가로 받은 전시과의 토지, 녹봉, 물려받은 재산으로 화려한 삶을 살았다.

지배층의 하위에는 향리, 직업 군인, 서리 등이 있었다. 이들은 대대로 직역을 세습하였으며 직역의 대가로 전시과의 토지를 받았다. 특히 향리는 지방의 토착 세력이자 속현과 특수 행정 구역의 실질적 운영을 담당하는 세력으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향리 중 최고직인 호장은 특정 가문에서 세습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서로 비슷한 가문끼리 혼인하여 지역에서 기득권을 유지하였다. 또한, 일부 향리는 과거를 통해 중앙 관직에 진출하여 문벌로 성장하기도 하였다.

### 백정이 생산 활동을 담당하다

양인 중 피지배층의 대부분은 농민이었다. 이들은 국가에 대한 직역이 없는 신분층으로 백정이라고 불렸으며, 국가 재정의 기본이 되는 조세, 공납, 역을 부담하였다. 백정은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지만, 과거에 합격해 신분을 상승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일부 백정은 군공을 세워 정호가 되기도 하였다.

백정 이외에 기술자인 공장과 상인도 양인에 포함되었으나, 백정에 비하여 낮은 대우를 받았다.

특수 행정 구역의 주민은 법적으로는 양인에 속했지만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 대우를 받았다. 교육이나 과거 응시, 거주 이전에 제한이 있었고, 일반 군현민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였다.

### 천인의 대부분은 노비로 구성되다

천인은 고려 신분제의 최하층을 이루었다. 천인의 대다수는 노비였는데 재산으로 간주되어 매매·증여·상속이 가능하였다. 또한, 부모 중 한 명이 노비이면 자녀도 노비가 되는 일천즉천의 원칙이 적용되었다.

노비는 크게 개인이 소유한 사노비와 국가에 속한 공노비로 나뉘었다. 사노비는 다시 주인집에 사는 솔거 노비와 주인과 따로 사는 외거 노비로 나뉘었는데, 외거 노비는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공노비는 국가 기관에서 역을 담당한 공역 노비와 주로 국유지를 경작하는 외거 노비로 구분되었다. 이들은 60세가 되면 역에서 벗어날 수 있어 사노비에 비해 대우가 나은 편이었다.

향·부곡 : 일반 농업 생산 지역

소·장·처 : 세·공물·요역 중 특정부문의 수취를 위해 설치된 지역

역·진 : 교통·운송과 관련된 일을 하는 지역

### 노비의 신분 상승

평량은 원래 평장사 김영관의 노비로 견주에 살면서 농사에 힘써 부유해졌다. 권세가에게 뇌물을 주어 천인의 신분을 면하고 양인이 되었으며, 산원동정 벼슬까지 얻었다. 그의 처는 원지의 집 여종이었는데, ..... (평량은 그 처남과 함께) 원지 부부와 그 자식들을 살해하였다. 평량은 (처도) 주인이 없어져 영원히 양인이 될 수 있다고 좋아하면서, 아들 예규에게 대정 벼슬을 얻어 주었다. - “고려사” -

### 역사 깊이 보기 : 직역의 대가, 전시과

(고려는) 문무의 백관으로부터 부병과 한인에 이르기까지 등급에 따라 농사짓는 땅(전지)과 땀감을 얻는 땅(시지)을 주었는데, 이를 전시과라고 하였다. (토지를 받은) 사람이 죽으면 모두 국가에 반납하여야 하였다. 오직 부병은 나이 20세가 되면 처음으로 지급받고 60세가 되면 (국가에) 되돌려 주었으며, 자손이나 친척이 있으면 전정(田丁)을 전하게 하였다. ....

또한, 공음전시가 있었으니, 역시 등급에 따라 자손에게 지급하여 전하게 하였다. - “고려사” -

전시과는 고려의 기본적인 토지 제도로 정호인 문무 관료·군인·향리 등에게 수조권(토지에서 세금을 거둘 권리)을 지급하는 것이다. 전시과의 수조권은 직역의 대가로 주는 것으로, 당사자가 직역에서 물러나면 나라에 반납하여야 하였다. 그러나 직업 군인, 향리 등에게는 직역과 함께 수조권도 세습되었다. 또한, 공음전과 같이 세습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 전시과 제도의 변천

시기	전시과 제도	특징
경종	시정 전시과	관품·인품을 기준으로 지급
목종	개정 전시과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 지급
문종	경정 전시과	현직 관리 중심 지급

#### 본관제를 시행하다

고려 시대에는 가문의 근거지인 본관을 중시하는 본관제가 시행되었다. 본관제는 태조 왕건이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각 지방의 호족에게 성씨를 하사하며 시행되었다. 성씨 앞에는 출신 지역을 밝혔는데, 지역은 주현, 속현, 특수 행정 구역과 같이 등급이 정해져 있었다. 본관은 개인의 사회적 지위까지 영향을 끼쳤으며, 성씨가 없는 일반 백성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을 본관으로 삼아 성씨처럼 사용하였다.

고려 정부는 본관제로 위계질서를 세우고, 향촌 사회를 통제하였다. 본관을 떠나 이주하는 것은 법으로 엄격히 금지하였으며, 관리가 되어 개경으로 올라오거나 혼인을 하는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락하였다.

관리가 중범죄를 저지르면 본관지로 돌려보내는 귀향형에 처했다. 귀향형을 받은 관리는 중앙 정치에서 소외되었다.

#### 부계와 모계가 동등하게 가족을 이룬다

고려 시대에는 일부일처제가 일반적이었으며, 혼인 후에는 일반적으로 처가에서 살아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이 구성되었다.

호적에는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록되었으며, 여성이 호주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재산은 균분 상속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남녀가 구분 없이 돌아가며 제사를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여성이 결혼을 하더라도 자신이 소유한 재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이혼과 재혼도 비교적 자유로웠으며, 재혼으로 태어난 자손도 별다른 차별을 받지 않았다.

고려 시대에는 부계와 모계를 모두 포함하여 친족으로 인식하여 부계와 모계의 차별 없이 의무와 혜택이 동등하게 적용되었다. 대를 이을 아들이 없을 경우 외손자가 대를 잇기도 하였으며, 친조부모와 외조부모의 상례 기간에 차이를 두지 않았다. 음서의 혜택도 친손자와 외손자가 동등하게 받았다.

### 사료로 보는 역사 고려 시대 여성의 지위

자료 1. 의붓아버지가 가난을 이유로 공부시키지 않고 자기 친아들과 같은 일을 하게 하자, (이승장의)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며 고집하기를, “..... 유복자(이승장)가 다행히 잘 자라 학문에 뜻을 둔 나이가 되었으니, 그 친아버지가 다니던 사립 학교에 입학시켜 뒤를 잇게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죽은 뒤에 내가 무슨 낮으로 전 남편을 보겠어요?” 라 하였다. 마침내 결단하여 술성재에서 공부하게 하니, 전 남편의 옛 학업을 뒤따르게 하였다. - ‘이승장 묘지명’ -

자료 2. 담당 관리가 청하기를 “왕의 이름과 같은 글자를 쓰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탁씨 성을 가진 자들은 모두 외가의 성을 따르도록 하고, 만약 친가와 외가의 성이 같을 때에는 친조모나 외조모의 성을 따르도록 하소서.” 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생각 키우기

Q1. 자료 1. 을 바탕으로 고려 시대 가족 제도의 특징을 설명해 보자.

Q2. 자료 2. 에서 고려 시대 사람들이 혈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지 추론해 보자.

### 역사 탐구하기 : 고려 시대 향리의 위상

고려 시대의 향리는 지방의 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존재이자, 지방의 실질적인 지배 세력이었다. 고려 시대 향리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알아보자.

### 향리란?

고려가 지방 제도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지방에 남아 있던 호족은 행정 실무층인 향리로 재편되었다. 하지만 고려의 지방에 대한 통제력은 제한적이었다. 이에 향리는 속현, 향·소·부곡 등의 행정 실무를 도맡으면서, 지방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었다.

## 향리와 과거

문종 때 향리가 과거로 중앙 관직에 진출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향리 중 일부는 과거로 중앙에 진출하여 문벌을 이루기도 하였는데, 대표적 문벌인 김부식의 가문도 경주의 호장 가문 출신이었다.

## 향리 자체의 과거 응시 자격

각 주현의 부호장 이상의 손자와 부호정 이상의 아들로써 제술업과 명경업에 응시하려는 자는 소재지의 관원이 시험하여 (개경에) 추천하도록 한다. 상서성, 국자감에서는 (그들이) 지은 시와 부가 격식에 어긋나는 자들이나, 명경에서 1~2개를 읽지 못하는 자를 심사하고 살펴, 그를 시험하여 추천한 관원을 처벌한다. - “고려사” -

## 과거로 중앙 관직에 나간 향리의 아들 이영

이영은 자가 대년이고 안성군 사람이다. 아버지 이중선은 안성군의 호장으로 경군으로 선발되었다. ....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영업전을 물려받아 서리가 되려 하였다. 정조(6부 중 이부와 병부)의 주사에게 서류를 제출하면서 읍만 하고 절을 하지 않으니 주사가 노여워하며 욕하였다. 이영이 즉시 그 서류를 찢어 버리며 말하기를 “내가 급제하여 조정에 출사할 수 있거늘, 어찌 너 같은 무리에게 예를 차리겠는가?” 라고 하였다. 숙종 때에 을과에 뽑혀 직사관의 관직을 얻었다. - “고려사” -

##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1. 윗글을 읽고 고려 시대 향리의 사회적 위치를 설명해 보자.

## 역사 정보 활용 및 의사소통

2. 향리가 과거로 관직에 진출한 것이 가지는 의미를 신라 골품제와 비교하여 이야기해 보자.

02

## 고려의 종교와 사상

우리 국가의 대업은 필히 모든 부처가 보호하고 지켜 준 힘에 도움받았다. 이 때문에 선종과 교종의 사원을 창립하고 ..... 내가 삼한 산천의 도움을 받아 왕업을 이루었다. - “고려사절요” -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고려가 부처에 힘입어 건국되었음을 강조하며 불교를 중시하였고, 유교와 풍수지리설 등도 강조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불교를 중심으로 유교, 도교, 풍수지리설 등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였다.

Q1. 고려 시대 불교는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화했을까?

Q2. 고려 전기와 후기의 역사 인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불교를 숭상하다

불교는 고려인의 정신세계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끼쳤다. 고려는 건국 초부터 숭불 정책을 추진하여, 국가 차원에서 팔관회와 연등회 등 불교 행사를 열었다.

승과를 실시하여 합격한 승려에게 승계를 주었으며, 신망 높은 승려를 왕사와 국사로 삼았다. 고려 시대 승려의 사회적 위치는 매우 높아 왕실과 문벌 가문에서 승려를 배출하기도 하였다.

고려 초기 불교는 선종과 교종으로 나뉘어 대립하였다. 의천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천태종을 개창하고, 교관경수를 내세워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하였다. 하지만 의천이 죽은 뒤 불교 교단은 다시 분열되었다.

### 교관경수

불교의 이론적 교리 공부(교학)와 실천적 수행(선)을 함께 닦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무신 정권 시기 지눌은 세속화된 불교를 개혁하기 위해 수선사(송광사)를 중심으로 결사 운동을 펼쳤다. 그리고 정혜쌍수와 돈오점수를 내세워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포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 정혜쌍수

선과 교학을 치우침 없이 고루 닦아야 한다는 이론이다.

### 돈오점수

내 마음이 부처와 다르지 않음을 깨닫고 꾸준히 실천할 것을 강조한 사상이다.

요세는 천태종을 중심으로 백련사 결사를 결성하여 참회의 실천을 강조하여 대중적 호응을 얻었다.

한편 지눌을 계승한 혜심은 유불 일치설을 내세워 유학과 불교의 통합을 시도하여 후에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였다.

불교는 원 간섭기에 들어 친원 세력과 연결되어 세속화되면서 폐단을 드러냈고, 이후 신진 사대부의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 다양한 사상이 공존하다

유교는 고려 건국 초부터 국가 정치 이념으로 자리 잡았다. 태조는 학교를 세워 유학을 진흥하였고, 광종은 과거제를 실시하여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관리로 선발하였다. 성종은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이념에 따라 통치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리고 수도의 국자감을 정비하고 12목에 경학박사를 파견하였다.

고려 중기에는 최충 등 이름난 유학자가 배출되고, 사학이 설립되는 등 유교 교육이 활성화되었다.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이 도입되었다.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바탕으로 원 간섭기 이후 나타난 정치·경제적 모순을 개혁하고자 노력하였다. 일부 신진 사대부는 불교의 폐단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하였다.

고려 시대에는 도교와 풍수지리설도 유행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도교 사원을 세우고 도교 의례를 지내 국가의 안녕과 번영을 기원하였으며, 풍수지리설은 3경의 설치와 서경 천도 운동 등의 근거가 되기도 하였다.

### 역사 인식이 변화하다

고려는 건국 초기부터 실록을 편찬하였으나 거란의 침략으로 모두 불타 버렸다. 그 후에도 실록을 편찬하였지만 지금은 전하지 않는다.

고려 전기 인종 때에는 김부식이 왕명에 따라 “삼국사기”를 편찬하였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에 따랐으며, 기전체로 편찬되었다.

무신 정변과 몽골의 침략을 거치며 자주 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규보는 ‘동명왕편’을 지어 고구려 계승 의식을 강조하였다. 일연은 “삼국유사”에서 단군을 우리 민족의 시조로 내세웠고, 다양한 설화를 기록하였다. 이승휴도 “제왕운기”에서 우리 역사의 시작을 단군으로 서술하였다.

한편 고려 후기에는 성리학의 영향으로 대의명분과 정통 의식을 강조한 역사서가 편찬되기도 하였다.

## 기전체

동아시아의 역사 서술 방법 중 하나이다. 본기(제왕), 세가(제후), 열전(인물), 지(주제), 표(연표) 등으로 구성된다.

## 사료로 보는 역사 : 자주 의식을 강조한 역사서 편찬

몽골의 침략과 간섭으로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단군을 시조로 기록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자랑스럽게 쓴 역사서가 편찬되었다. 이들 역사서는 우리 민족의 독자성과 유구함을 강조하여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 역사특집 : 고려의 문화유산

### 인쇄술

고려 시대에는 인쇄술이 크게 발전하였다. 외세와 항쟁하는 과정에서 제작된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은 고려의 발달된 목판 인쇄술을 보여 준다. 또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보여 준다. 또한, 세계 최초로 금속 활자 인쇄술을 발명하여 “상정고금예문”, “직지심체요절” 등 다양한 책을 인쇄하였다.

### 불교 예술

고려 시대에 불교는 고려인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고려인은 믿음을 담아 다양한 불상과 불화를 남겼으며, 시기와 지역에 따라 철불, 지역적 특색을 살린 거대한 불상 등 다양한 불상을 만들었다.

### 공예

고려인은 뛰어난 기술을 바탕으로 고려청자, 금속 공예, 나전 칠기 등 화려한 공예품을 만들었다.

### 건축과 탑

고려 시대의 건축은 주로 궁궐과 사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또한, 다양한 형태의 다각 다층탑이 많이 만들어졌다.



## 역사 생각하기 : 고려의 국가 축제, 팔관회

고려 시대 팔관회는 연등회와 더불어 매우 중요한 국가 행사로 고려는 팔관회를 성대하게 열어 국제적 위상을 과시하였다. 고려 시대 팔관회의 모습을 알아보자.

태조 왕건은 훈요 10조에서 불교와 전통 신앙이 어우러진 행사인 팔관회를 강조하였다. 팔관회는 외국 사절까지 참여하여 고려의 ‘해동 천하’를 보여 주는 국제적인 행사였다.

첫째 날 : 왕이 태조의 초상에 절을 하는 예를 가장 먼저 치렀다. 왕이 자리에 앉으면 태자와 왕족, 관료들이 차례로 인사를 올렸다.

### 훈요 10조 속 팔관회

여섯째, 내가 지극하게 바라는 것은 연등회와 팔관회에 있으니, 연등회는 부처를 섬기는 까닭이고 팔관회는 하늘의 신령 및 오악·명산·대천·용신을 섬기는 까닭이다. 후세에 간신들이 이 행사를 더하거나 줄일 것을 건의하는 것을 결단코 마땅히 금지하라. 나도 처음 마음으로 맹세하기를, 연등회·팔관회를 하는 날씨가 국가의 기일을 범하지 않게 하고 임금과 신하가 함께 즐기겠다고 하였으니 마땅히 조심스럽게 이대로 시행하라. - “고려사” -

### 팔관회의 진행

팔관회를 열었다. 신봉루에 나아가 백관에게 연회를 베풀고 법왕사에 행차하였다. 다음날에는 큰 법회를 열어 또다시 연회를 베풀고 풍악을 관람하였다. 중앙과 지방에서 표를 올려 축하하였다. 송의 상인들과 동번·서번·탐라가 토산물을 바치니, 자리를 내려 주어 예식에 참석하게 하였으며, 후에 이를 기본으로 삼았다. - “고려사절요” -

둘째 날 : 왕족과 관료들이 먼저 왕에게 인사를 올리고 이후 송 상인, 여진 추장, 탐라 사절단 등이 왕에게 축하 인사를 올리고 공물을 바쳤다.

### 역사 사실 이해

1. 팔관회 행사에서 고려의 ‘해동 천하’를 보여 주는 요소를 찾아보자.

### 역사 자료 분석과 해석

2. 고려 태조가 팔관회 행사를 중요하게 생각한 까닭을 추론해 보자.

### 4 중단원 마무리하기

## 개념 확인하기

1. 다음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 보자.

### 1. 고려의 신분 제도

양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 대대로 고위직 진출 가문, 과거·음서를 통해 관직 진출</li> <li>● 향리, 직업 군인, 서리 등: 직역 세습</li> <li>● 2: 일반 농민, 법적으로 과거 응시 가능, 조세·공납·부역의 의무</li> <li>● 특수 행정 구역 주민: 일반 군현민에 비해 차별 대우, 과거 응시나 거주 이전의 제한</li> </ul>
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부분 노비(공노비, 사노비)</li> <li>● 재산으로 취급받아 매매·상속·증여 가능</li> </ul>

### 2. 사회 제도

본관제	가문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운영된 사회 제도
가족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부일처제가 일반적, 여성의 지위가 비교적 높음.</li> <li>● 부계와 모계를 포함하여 포괄적 혈연 의식을 가짐.</li> </ul>

### 3. 고려의 종교와 사상

불교		
	의천	교관검수 → 교종 중심 선종 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선사 결사 운동</li> <li>● 정혜쌍수, 돈오점수 → 선종 중심 교종 통합</li> </ul>

유교	<table> <tr> <td>전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종: 4 시행</li> <li>● 성종: 유교 정치 이념 수용, 국자감 정비, 경학박사 파견</li> </ul> </td></tr> <tr> <td>후기</td><td>성리학 도입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td></tr> </table>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종: 4 시행</li> <li>● 성종: 유교 정치 이념 수용, 국자감 정비, 경학박사 파견</li> </ul>	후기	성리학 도입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
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종: 4 시행</li> <li>● 성종: 유교 정치 이념 수용, 국자감 정비, 경학박사 파견</li> </ul>				
후기	성리학 도입 →신진 사대부의 사상적 기반				
도교	도교 사원 건립, 도교 의례 시행				
풍수지리설	3경 설치, 서경 천도 운동의 근거				
역사 인식	<table> <tr> <td>전기</td><td>5 : 유교적 합리주의, 기전체로 편찬</td></tr> <tr> <td>후기</td><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 의식 강조한 역사서 편찬</li> <li>● “삼국유사”(일연), ‘동명왕편’(이규보), “제왕운기”(이승휴) 등</li> </ul> </td></tr> </table>	전기	5 : 유교적 합리주의, 기전체로 편찬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 의식 강조한 역사서 편찬</li> <li>● “삼국유사”(일연), ‘동명왕편’(이규보), “제왕운기”(이승휴) 등</li> </ul>
전기	5 : 유교적 합리주의, 기전체로 편찬				
후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주 의식 강조한 역사서 편찬</li> <li>● “삼국유사”(일연), ‘동명왕편’(이규보), “제왕운기”(이승휴) 등</li> </ul>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교(敎)를 배우는 이는 대개 내심을 버리고 외면에서 구하고, 선(禪)을 익히는 자는 인연을 잊고 내심을 밝히기를 좋아하니, 모두 한쪽에 치우친 것으로 두 극단에 모두 막힌 것이다. - 의천, “대각국사 문집” -

한마음을 몰라서 끝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이가 보통 사람인 중생이고, 한마음을 깨달아서 한없는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이가 깨달은 사람, 즉 부처이다. 중생과 부처가 한마음을 알고 모르는 데에서 갈리는 것이므로 마음을 떠나서 불교를 논할 수 없다. - 지눌, “정혜결사문” -

1. 자료 1. 에서 제기된 불교계의 문제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1. , 자료 2. 와 관련된 불교 통합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 성취 기준 확인하기

1. 고려 사회가 다원적 구조로 이루어진 사회임을 설명해 보자.

2. 고려 시대 다양한 사상의 모습을 각각 정리하여 발표해 보자.

3 다음 자료에 나타난 역사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 이야기해 보자.

신라의 박씨, 석씨는 모두 알에서 태어났고, 김씨는 금으로

된 상자에 들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거나 혹은 금수레를 탔다고도 한다. 이는 너무 괴이해서 믿을 수 없으나, 세속에서는 서로 전하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 - “삼국사기 ” -

제왕이 장차 일어날 때는 ..... 반드시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으니, 그런 뒤에야 능히 큰 변화를 타서 제왕의 지위를 얻고 대업을 이루었다. .... 삼국의 시조들이 모두 신기한 일로 탄생했음이 어찌 괴이하겠는가. - 일연, “삼국유사 ” -





